

뉴 패러다임 관점에서 해석한
공간의 위계구조와 준공적 공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mi-public space and
spatial hierarchy understood from the viewpoint of new paradigm

신 문 영

원광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강사

목차

1. 서론

- 1.1. 연구의 목적
- 1.2. 연구의 방법

2. 뉴 패러다임(NEW PARADIGM)의 도래와 공간디자인

- 2.1. 새로운 과학 체계의 도래
- 2.2. 뉴 패러다임에 따른 공간의 이해

3. 공간의 위계구조(SPATIAL HIERARCHY)

- 3.1. 공간의 위계와 영역성
- 3.2. 공간의 위계구조에 따른 환경심리

4. 준공적 공간의 특성

- 4.1. 공·사적 공간의 상호 관계성과 준공적 공간
- 4.2. 도시 활성화 역할로서의 준공적 공간의 중요성

5. 결론

참고문헌

Keywords

semi-public space, spatial hierarchy, new paradigm

Abstract

Environmental design is the process of creating and suggesting a new culture reflecting the spirits and scientific knowledges of an age, so it is important for a designer, who deals environment, to perceive the present trend of science.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way to recover the vanishing image in current urban environment from the viewpoint of changing world-view. The proces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1. According to spatial hierarchy, the role of each space and the importance of each space in correlation with human are considered.
2. The method to understand the space from the viewpoint of new paradigm and the direction of environmental design's access are suggested.
3. The notion that introduction of semi public space in urban environment is consistent with new paradigm is demonstrated and the semi public space's role of stimulation of urban activity is emphasized.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a possibility that semi public space, introduced by understanding of a space on the basis of new paradigm, expands the territory of life and overcomes the negative environmental problem like disorder, increase of entropy.

논문요약

환경을 다루는 디자이너에게 있어서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과학적 지식 체계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당대의 시대적 세계관과 타학문 분야의 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제시하는 과정이 환경디자인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변화하는 세계관의 관점에서 공간을 파악하여 현대인의 도시환경에 상실되어 가는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그 의의를 둔다. 연구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공간의 순위적 질서에 따른 각 공간의 역할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각 공간의 중요성을 논한다.
2.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공간은 어떻게 해석되는지와 그에 따른 환경디자인 접근방법의 방향을 제시한다.
3. 도시 환경에 있어서 준공적 공간의 제안이 뉴 패러다임과 그 입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논하고 준공적 공간의 도시 활성화 역할의 중요성을 밝힌다.

연구 결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공간의 이해에서 출발한 준공적 공간이 도시에서의 풍요로운 삶의 영역을 확장하여 물질적, 엔트로피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 에너지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환경은 인간 삶에 있어서 일생을 통한 경험의 장이며, 환경디자인은 인간 행태 장치들의 위계를 구성하는 것이다. 인간은 환경과의 상호 관계 속에서 미적 가치를 경험하면서 삶의 방식과 미래의 가치 체계를 결정하게 된다. 인간은 환경으로부터 자극 받아 정보, 에너지를 섭취하여 행태를 유발하게 되는 것으로 환경을 하나의 시스템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처럼 환경은 우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자극이며, 따라서 풍부한 지각적 정보인 환경을 제시하는 환경디자이너는 그 사고의 방법과 세계관에 있어서 변화하는 과학적 지식 체계의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문화적 메시지 시스템을 통제함으로써 인간의 미래 행태의 발전적 제시로서의 디자인이 가능할 것이다.

뉴 패러다임(New Paradigm)의 관점에서 공간을 해석한다는 것은 유희적으로 이론적 지식 체계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는 학제적 입장을 수용하는 것이고, 그것은 공간의 하이ера키(Spatial Hierarchy)에 따른 이해를 통하여 중간영역인 준공적 공간(Semi-public Space)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행위와 관계 있다. 다시 말하면 뉴 패러다임적 견해는 에너지의 흐름을 질서를 향한 혼돈의 움직임, 동향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환경디자인이 바로 환경에 질서를 부여하는 혼돈의 과정으로서의 창조 작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 생활 영역에서는 준공적 공간이 그 역할을 한다고 본다. 즉 공간의 순위적 질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준공적 공간의 역할은 필연적인 것이고, 이것이 뉴 패러다임 관점에서 해석한 공간의 이해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연구를 통하여 강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도시의 개인이나 집단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

- 1) 김문환 : 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254, (1992). / 박주현, 김정재 : 조형론, 기문당, 133, (1994).

미(美)는 “즐거움(Pleasantness)”과 동일한 것으로 결국 미는 지각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느낌과 정서를 포함하여 정신적 실재에 주어질 수 있는 주관적 가치 판단이라 할 것이다. 미적 가치는 가능성이라는 말뜻으로 기술되는데, 적절한 조건들 아래 관찰자들 속에 특정한 반응 유형, 즉 미적 반응을 산출해 낼 수 있는 대상의 능력이라는 뜻을 지닌다. Dewey는 경험을 환경과의 상호 작용에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인간에 의하여 실현된 경험은 어떤 것이든 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한다. 즉 인간은 사회, 환경 속에서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통하여 정보를 지각하고 경험을 축적하게 되며, 다양한 경험은 인간의 미의식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필요한 일련의 행태 장치를 안정되게 조합하는 역할을 하는 준공적 공간의 필요성을 살펴봄으로써 그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돕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환경디자인 영역은 사회과학의 변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정보화 사회와 같이 호홉하는 역동적인 성격을 가진 분야로 물리적 실체를 디자인한다는 개념을 넘어서 사회의 태도, 규범, 가치, 문화를 변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시대적 가치관과 사유 방식에 근거하여 환경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공간적 문제의 해결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 범위는 뉴 패러다임적 사고의 틀에서 공간을 바라보고 공간의 순위적 질서 체계를 확고히 해주어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의 준공적 공간을 고찰하고, 그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설정한다.

연구의 전개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과 과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공간의 하이ера키에 따른 각 공간 영역의 기능과 심리학적 측면에서 그 공간의 역할을 설명하여 공간 위계구조에 대한 중요성을 밝히고 연구의 타당성을 제시한다.

둘째, 환경디자인에 있어서 다학문적 접근 필요성의 인식 하에 정통 과학의 학문적인 기반이 되는 현대 물리학의 발전 성향을 설명하여 상호 연관성을 인식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기능으로서의 디자인과 미래를 이끄는 역할로서의 과학의 만남은 극히 자연스러운 제안이다.

셋째, 새로운 과학적 체계의 동향에 따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가능하고, 따라서 결론적으로 뉴 패러다임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는 준공적 공간의 역할과 도시 활성화 측면과의 관계를 고찰하여 본 연구의 의의를 밝힌다.

2. 뉴 패러다임(New Paradigm)의 도래와 공간의 이해

2.1. 새로운 과학 체계의 도래

새로운 패러다임(New Paradigm)이란 과거의 뉴턴식 사유방식의 종말을 의미한다. 뉴턴의 법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고전주의적 자연과학은 결정론적으로 우주를 설명하며, 시간 가역적(可逆的)이어서 시간의 방향성이 부정되어 있다. 즉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현재 사건에 대한 충분

한 정보만 있으면 과거는 물론 먼 훗날에 일어나게 될 사건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간의 개념에 있어서는 공간을 시간과는 별개로 독립되어 있는 존재로서의 분리된 것으로 파악하였다.³⁾ 공간의 과학적 실체 개념을 첫째, 물체를 구성하는 궁극적 물질은 더 이상 분해될 수 없고 둘째, 물리학의 대상인 물체는 인간의 주관과는 독립된 객관적 대상으로 다루어졌으며 셋째, 과학적 실체는 절대공간과 절대시간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후에 상대성 이론과 양자 역학의 등장으로 '절대성', '객관성'에 대한 확고한 신념은 깨어지고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궁극적 실체라는 원자는 원자핵과 전자로, 다시 원자핵은 양성자와 중성자 그리고 중간자까지, 또한 소립자로서의 궁극적 물질까지 분할되어 왔다. 관찰자와 독립되어 있는 객관적 대상의 물체 개념의 절대성이 무너지고 관찰 대상과 관찰자의 관점 사이의 상대적인 과학적 인식론이 형성된 것이다.³⁾ 즉 공간과 시간이 각각 절대적으로 독립된 이원적인 존재가 아니라, 광원을 매개로 한 상대성의 존재라는 개념이 아인슈타인에 의해 확립된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상대적 관점에서 보여지는 시각적 효과로서 기차의 창문에서 볼 때 대상이 한 면 이상으로 동시적 파악이 이루어지는 것을 설명하였다. 우리의 일상 세계에서는 정면에서 그것을 본 후 대상의 옆면을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경과해야만 하고 우리의 위치도 공간 안에서 변화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고속 기차에서는 대상의 정면과 측면은 동시에 보여진다.(그림 4) 기차 속도가 빨라져 최종적으로 빛의 속도에 이르게 되면, 공간은 기차의 방향 축을 따라 길이는 없이 깊이와 높이를 가지는 무한히 얇은 평면으로 수축된다.(그림 5) 이것은 유클리드가 동질적이고 자력으로는 움직이지 못하는(활성력이 없는) 것이라고 선언한 공간이, 그리고 뉴턴이 절대적이라고 제안한 공간이 관찰자의 상대적 속도에 의존하는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명되는 사유실험(Gedankenexperiments)인 것이다.⁴⁾ 따라서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맥락 속에서 실존하는 존재이며, 항상 이 두가지 요소에 의해 치해진 환경 속에서 살고 있음을 인식할 때 이러한 시·공 개념의 변화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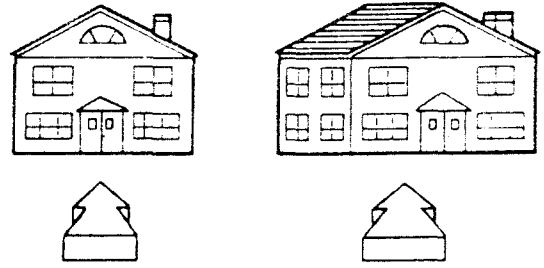


그림 4. (좌)시간당 5마일로 지나는 기차에서 본 집의 모습)
(우)초당 93,000마일로 지나는 기차에서 본 집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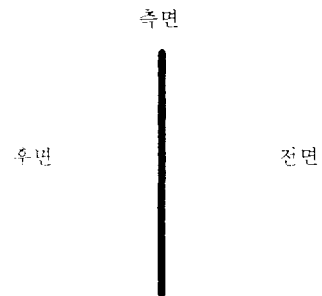


그림 5. 빛의 속도로 지나가는 기차의 창에서 보이는 압축된 전원 풍경의 무한히 얇은 조각

하이젠베르크는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자연현상은 관찰자의 인식 한계 때문에 통계적인 확률(Probability)로밖에 관찰할 수 없다는 것을 원리화 하였다. 그 원리가 뜻하는 것은 고전 물리학의 인과론을 폐기해야만 한다는 것과 형식논리의 지양이라는 문제를 가지왔고 결과적으로 원자세계에서의 물리현상은 확률과 통계적인 분포에서만 기술하도록 되었다. 이것은 기존 자연과학의 사유방식인 기계적 자연관에 의한 결정론적 세계관의 붕괴를 말한다.⁵⁾

카오스(Chaos)이론의 창시자인 벨기에의 노벨 화학상 수상자 일리아 프리고진(Ilya Prigogine)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준다. 기존 자연과학의 열역학은 "우주의 엔트로피(Entropy)⁶⁾는 끊임없이 증가한다."는 필연

2) Leonard Shlain, Art & Physics : 김진영 역, 미술과 물리의 만남 1, 도서출판 두레, 170, (1995).
3) Werner Heisenberg, Physics and Philosophy : 최정복 역, 철학과 물리학의 만남, 도서출판 한겨레, 100-107, (1990).
4) 2) Ibid, 135-135.

5) 3) Ibid, 198.
6) Lynden, H., : A New Language for Environmental Design, New York Univ. Press, 99-100, 105, (1972).

어떤 계(System)의 조직화(Organization)된 정도는 엔트로피라는 확률의 척도로써 평가할 수 있다. 엔트로피라는 용어는 원래 열역학에서 나온 것으로 하나의 '닫힌 계(Closed System)'에 있어서 그 상태가 나빠지는 경향에 대한 경직화된 표현으로 그 계가 상당히 조직화되고 분류 가능하며 불확실성(Probable)이 적은 상태에서, 더욱 불확실하고 분류 불가능하며 혼란스러운 상태(Chaotic State)로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닫힌 계의 엔트로피 증가에 의해 나타나는 이러한 과정

의 절대 법칙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에너지가 모두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데 소모된 후 결국 '열적 죽음'이라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프리고진은 이러한 인간과 자연 사이의 대화가 단절되는 모순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그것은 확률론적 우연(偶然)과 시간 비가역성(非可逆性)으로 대표되는데 천체학에서 생물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진화적 특성의 원인이 되는 불안정성과 혼동적 특성을 지닌 요동(搖動)이 관찰됨으로써 가능해졌다. 즉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자연은 능동적, 창조적으로 무질서한 주위에서 에너지를 흡수하여 엔트로피를 무산(霧散)시켜 거시적 규모의 안정된 질서의 무산구조(霧散構造, Dissipative Structure)로 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증가하는 엔트로피는 더 이상 손실과 같은 뜻이 아니며, 이제는 계 안의 자연적인 과정들로 설명된다.⁷⁾ 양자물리학은 참여하는 우주 속에서 관찰자와 중재적 도구들이 서로 불가분의 의존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며 혼란스러운 상태들이 활물론적으로 작용하여 그 혼란에도 불구하고 유기체적 자가조직(Self-organization)이라는 새로운 원리를 발생시킬 수 있다⁸⁾는 것이다. 따라서 뉴 패러다임에 의한 자연과학 분야는 엔트로피의 부정적인 측면을 뒤엎고 엔트로피(Entropy)의 혼돈적 경향을 계(系)의 진화과정을 추동시키는 원천이며 새로운 질서 탄생의 시간 과정으로 파악한다.⁹⁾

2.2. 뉴 패러다임(New Paradigm)에 따른 공간의 이해

공간은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끼리의 상호관계에서 생겨난다는 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의한

(Process)은 처음에 서로 다른 온도 분포를 가지는 영역들로 구성된 물리적인 계를 생각한다면 쉽게 가시화될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계는 평형상태로 향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경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즉 온도만이 에너지를 표시할 수 있으므로 모든 에너지는 분산되어 잃어 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

'엔트로피'라 불리우는 한 척도의 특성은 시간과 함께 증가한다는 것이며, 그것이 증가함에 따라 우주와 우주 안의 모든 닫힌 계들은 자연적으로 질이 저하되고 그들만의 독특함을 점점 잃어 간다. 불확실성이 가장 적은 상태에서 가장 불확실한 상태로, 즉 독특함과 일정한 형태가 존재하는 구분과 조직(Differentiation and Organization)의 상태에서 혼돈과 유사함(Chaos and Sameness)의 상태로 움직이는 것이다.

- 7) Ilya Prigogine, Order out of Chaos : 신국조 역,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고려원, 177, (1994).
- 8) Karl s. Chu, : Modal Space - Towards An Architecture of Possible World, 공간, 8월호, 72, (1995).
- 9) 이상문 : 환경논의의 생점들(엔트로피 논의와 환경문제), 도서출판 나라사랑, 41, (1994).

현대 물리학의 견해는 공간의 이해에 있어 중요한 개념이다. 이것은 공간이 비어 있는 용기로서 어떤 사물이 있기 이전부터 존재하며,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존재할 수 있는 자족적 실체라는 절대적 공간의 뉴튼식 사고와는 매우 대조적이다.¹⁰⁾ 뉴턴이 주창한 절대공간은 인간의 공간체험이나 생활과 무관한 추상적 개념이며 물체 앞에 스스로 존재하는 공간으로 물체와 관찰자와의 관계에 의해 인간이 체험할 때 감지된다는 뉴 패러다임적 공간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¹¹⁾ 일반적으로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은 사적 개념의 공간 영역과 공적 공간의 영역으로 대별될 수 있으나, 각각의 영역을 동등한 개념으로 파악하여 그 상호 관계에 의해서만이 공간의 인식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상대적 개념은 공·사적 공간 영역의 한계를 일원화하는 것으로 여기에 중간영역으로서 공간의 상호 침투성을 높여 주는 준공적 공간의 중요성이 있으며, 이것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의한 도시 환경의 이해에서 출발한다.

모든 구조는 질서정연할 때 이해하기 쉽고 그러한 구조적 질서¹²⁾를 유지하는 공간이 궁극적으로 인간과 융합되는 공간이다. 디자이너가 창조적 정신을 가지고 공간에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이 환경디자인이라고 본다면 공간 영역간에 있어서 일관성의 결핍에 따른 질서의 균열, 또한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질서의 파괴, 무질서의 도입¹³⁾은 환경디자이너의 수정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대립되는 두 공간 영역인 사적 공간, 공적 공간의 중간영역에 준공적 공간을 계획함으로써 이루어지며, 현대사회에 있어서 엔트로피의 증가에 따른 무질서의 환경에서 엔트로피를 무산시켜 안정된 질서를 찾게 하는 작용으로 뉴 패러다임의 흐름에 순응하는 공간적 역할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구조의 상호 연관성과 의존적인 관계에 근거하여 전체적인 구조와 현상을 파악하려는 유기적, 시스템적 사고에서 출발한다. 전체로서의 시스템이란 계층 질서 체계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상호 의존적이

- 10) 안근혁 : 외부공간의 현황과 활용방안, 공간, 5월호, 35, (1984).
- 11) 교재편찬위원회 : 공간과 생활, 계명대학교 출판부, 13-14, (1993).
- 12) 질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적은 상태 : 혼돈은 가장 불확실한 상태 (Order is the least probable : Chaos the most probable) (Ibid, 106.)
정보는 불확실성의 줄임이며, 그것을 줄이는 것은 기호와 메시지로써 가능하다. 디자인적 이미지는 예술 기호로 시각화되며, 메시지는 커뮤니케이션에서의 기호 체계로 반드시 물질적 통로 Channel, 즉 디자인의 시각화 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할 수 있다.
- 13) Rudolf Arnheim, Entropy and Art : 정용도 역, 예술과 엔트로피, 눈빛, 9, (1995).

고 상호 연결적인 방법 안에서 역동적 요소로 인식되어지는 한계 지워진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전체란 부분들로 구성되어져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부분들이 서로 합목적적인 작용을 한다. 시스템은 통합된 전체이며 작은 단위로 환원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개방적이어서 그것들의 경계를 넘어서 에너지를 교환하여 정보를 전달한다.

따라서 인간이 체험하는 공간 또한 양극에 대립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고, 상호 밀접한 연관을 맺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하며 사적·공적 공간 영역간의 화합은 필연적인 것이다.

3. 공간의 위계구조(Spatial Hierarchy)

3.1. 공간의 위계와 영역성

공간은 인간의 지각에 의한 인지과정에서 형성되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체험을 통한 시간의 경과로서 감지된다. 공간은 개별적으로 독자성을 지니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이며 복합적인 상호 관계성 속에서 사건의 연결체로 나타나며, 시간의 연속성을 경험함으로써 장소성의 성격이 파악되는 것이다.¹⁴⁾

이렇듯 공간의 개념은 다분히 추상적이나 인간에게 있어서의 공간은 물질의 위치와 운동으로 나타나는 물리적 공간과는 달리, 실재생활 즉 감정, 행동, 사고와 관련되는 의미공간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도시화된 인간의 주 환경은 프라이버시(Privacy)와 커뮤니티(Community) 생활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순위적 질서를 연계적으로 형성하여 균형을 이룬다. 영역의 한계는 개인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공간영역의 하이어라키(Spatial Hierarchy)는 사적(Private)→준공적(Semi-Public)→공적(Public) 공간의 구성으로 설정할 수 있으며 1차영역(Primary Territory), 2차영역(Secondary Territory), 공적영역(Public Territory)으로 분류되기도 한다.(그림 1)

1차영역은 전형적으로 오랜 기간 사용자들의 완전한 통제 하에 있는 공간이며, "개인적 영역(Personal Territory)"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개인적 공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기방어(Self-protection)이며, 타인들에게서 받는 육체적, 정신적 우려에 대한 완충적 역할을 한다. 이 공간은 반영구적으로 점유되는 지역 혹은 공간을 말하고 높은 프라이버시가 요구되며 외부로부터의 침입에 대한 배타성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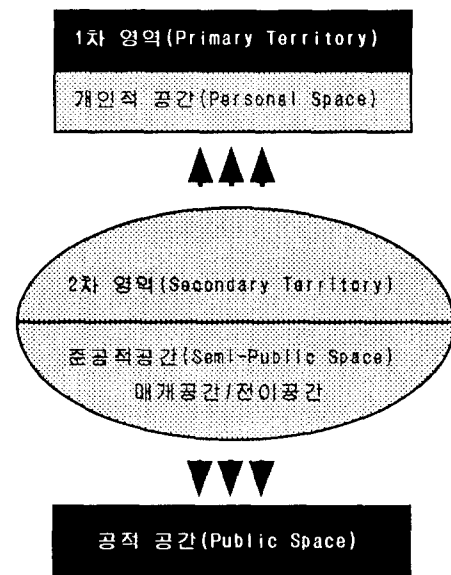


그림 1. 공간영역의 하이어라키

2차영역은 준공적 특질을 가진 영역으로서, 소유가 영속화되기도 배타적이지도 못하지만 어느 정도는 소유권을 가지는 영역으로서 과정적 영역, 전이공간의 구실을 한다. 1차 영역보다는 배타성이 낮으며 어느 정도는 공간을 개인화할 수 있으며 1차적 영역보다는 덜 영구적이다. 2차적 영역은 보통 1차적 영역과 공적 영역을 연결시켜 주는 공간이며 두 영역의 중간쯤에 위치한다. 이러한 영역은 개인의 자율성을 제공하는 프라이버시 획득을 위한 개인적 공간과 개인, 집단에 대한 대인 관계의 연결 망으로서의 공동체를 위한 공적공간의 기능으로, 인간의 행태 프로그램을 조절하는 인조환경(人造環境:Man-made Environment)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공간적으로는 서로 다른 영역인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의 경계부분에 위치하여 상호관계를 중화시켜 하나의 과정적 공간으로 기능하며, 이러한 경계부에는 장소성이 부여된다.¹⁵⁾ 준공적 공간의 장소성은 절절점(Node)에서 얻어지는 정보의 풍요로움으로 두 공간 사이를 연결하는 위계적 관계가 작용하여 방향성을 가지고 확장되는 전이공간의 성격을 갖는다. 즉 「장소는 외부로 확장되고 동시에 그 외부가 경계를 통과함으로써 전이부(Area of Transition)를 형성」한다.

공적영역은 사용자들이 전형적으로 관습과 규칙 등을 준수할 것을 필요로 하지만 거의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다. 공적 영역은 배타성이 가장 낮으며 일정한 시간의 이용자는 잠재적인 여러 사용자 가운데 한 사람일 뿐이다.

14) 조계순 : 실존적 주거공간, 공간, 5월호, 120. (1985).

15) C. N. Schulz,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 김광현 역, 실존, 공간, 건축, 태림문화사, 36, (1985).

또한 거의 모든 사람의 접근이 허용되는 공간으로 프라이버시의 유지도는 가장 낮다. 인간 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필요 불가결한 영역으로 인간은 안정된 환경 내에서 사회성을 가지고 「공공생활」을 통해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며 의미 있는 연대감을 형성하고 공동사회는 가장 인간적인 생활을 유도하면서 창조적 반응을 자극하여 관계를 풍요롭게 하는 문화적 환경이어야 할 책임이 있다.

공간에 있어서의 이러한 순위적 질서는 내적이거나 기능적인 질서를 재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공간 구조의 유기적인 조직과의 상호 관련성 하에서 각 공간영역의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간의 이해와 지각적인 측면에서 공간 상호간의 연결은 필연적인 것이며, 이 연결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전체성의 공간을 형성하게 된다. 각각의 영역공간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동시에 접근, 이행의 질서를 위한 실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적극적인 해답을 공간에 적용하는 것이 하이ера키에 따른 구성을 이루는 힘이 된다. 질서는 공간구조 기능을 만드는데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다. 공간영역의 위계¹⁶⁾, 하나의 공간적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의 질서적 전이 체계는 구조 즉 공간의 영역성을 이해하기 쉽게 만드며, 따라서 인간과의 상호 관계에서 잘 융합되는 공간은 이와 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을 것이다. 즉 도시의 공간에는 각기 그 용도와 모습에 따라 각각의 영역이 존재하며 그러한 영역간에는 질서체계, 위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3.2. 공간의 위계구조(Spatial Hierarchy)에 따른

환경심리(Environmental Psychology)

우리 생활의 물리적 장치들(환경=Setting)은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환경과 인간은 “통합체계”를 형성하여 힘의 상호작용을 통한 자극과 반응의 과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¹⁷⁾(그림 2)

환경심리는 인간생활을 지시하는 물리적 환경과 인간 사이의 복잡하고 미묘한 관계 속에서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는 인간 행동방법, 행태와 각 개인의 필요에 따른 충족을 위해 환경이 어떻게 이용되는지의 상호 관련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16) Lang, J., *Creating Architectural Theory* : 조철희, 김경준 역, 건축이론의 창조, 국제출판사, 230, (1991).
 오스카 뉴먼(Newman, O., 1972) : 영역의 위계는 공적 영역에서 사적영역에 이르기까지의 구분이다. 영역의 위계와 프라이버시의 등급은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17) 임승빈 : *환경심리·행태론*, 보성문화사, 43,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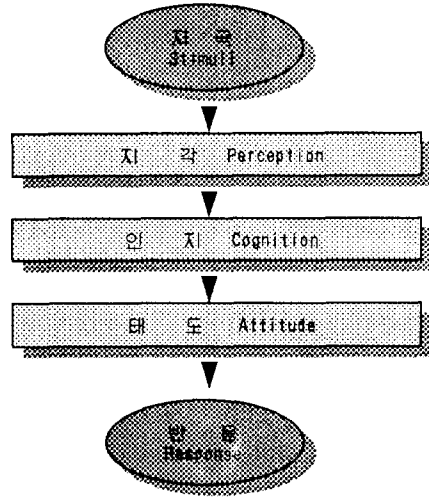


그림 2. 자극-반응의 과정

환경의 다양한 요구에 적용하는 인간의 심리적 과정을 이해할 때, 인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공간의 올바른 인식이 가능하다. 따라서 각 공간영역의 환경적 조건(Environmental Condition)에서 어떠한 심리적 과정(Psychological Processes)을 거쳐 행동적 결과(Behavioral Consequences)로 나타나는가에 관한 고찰은 공간의 장소성에 따른 위계적 질서의 이해를 돕고, 그 가치를 인식하도록 한다.

사람들은 자신이 관여된 행위에서 적정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얻으려고 노력하며, “개인적 공간” 욕구에 대한 제공은 프라이버시 획득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다. 프라이버시는 우리 생활의 필수적인 측면이며 미묘하고 중요한 방법으로 많은 방법으로부터 위협받는다. Nancy Marshall은 프라이버시를 위축(Withdrawal)과 정보의 통제(Control of Information)로 정의하고 고독, 격리, 친밀감으로 위축을 강조하였다. 고독은 혼자 있고 싶은 열망으로 정의하고, 격리는 이웃과 접하지 않고 대화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친밀감은 가족이나 특별한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또한 정보의 통제, 즉 익명과 침묵과 이웃이 없는 것이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익명이란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것로부터 막는 것, 침묵이란 특히 잘 모르는 사람에게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말하지 않으려는 열망이라고 정의하였다. 개인적 공간은 “육체완충지역(Body-buffer Zone)”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인간의 자기방어 기능이 개인적 공간의 1차영역에서 행해짐을 말한다.¹⁸⁾ 자신의 존재에 대한

18) C. J. Holahan : *Environmental Psychology*, Random House, 243, (1982).

불특정 대상성의 방어 심리는 개인적 영역을 확대하려는 인간의 행동성 결과로서 관찰되며, 이러한 영역은 개인이 자아나 개체성의 기본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수적인 공간이 된다. 다시 말해 타인과 격리된 상태로 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 욕구, 즉 프라이버시¹⁹⁾는 의도적으로 계획된 인간위주의 정서적 공간영역의 확보로 얻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적 공간²⁰⁾은 고정적 위치, 한정된 영역 내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인간의 「정적추세」²¹⁾와 관련되며, 내적인 심리적 안정의 충족으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개인영역(Private Zone)과 공공영역(Public Zone)에서 프라이버시에서 커뮤니티에 이르는 단계적 공간 질서를 연속적으로 전이시켜 주는 역할의 준공적 공간을 두 영역의 중간영역에서 공간의 융합을 도우며, 상호 침투의 관계를 유지시켜 준다. 인간에게는 도시 생활의 두가지 변인 공간, 사회적 타인과 접촉하는 생활과 사적, 개인적 생활의 양면성을 동시에 구하는 특성이 있다. 즉 프라이버시를 지키려 하면서도 커뮤니티의 의식을 유지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다 함께 만족시켜 주는 공간이 매개공간으로서의 준공적 공간이다. 또한 공간의 정적추세와 동적추세 사이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며 공동사회를 인간적인 생활로 유도하는 창조적 반응을 자극하고 필요롭게 하는 문화적 환경을 제시한다. 준공적 공간의 영역은 도심적 내의 여러 사람이 모이는 광장, 휴식 공간, 도심공원과 같은 도시 내의 사적인 외부 공간에서, 고

리고 건물의 후퇴 공간인 아케이드(Arcade), 아트리움(Atrium), 킨켄가든(Sunken Garden)과 같이 건축적으로 의도되어진 내부 영역에서 형성된다. 사용자나 소유자는 알지못한 그것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공간²²⁾이며, 적합한 준공적 공간은 인간 상호간의 사회적 교섭감을 높이고 긍정적인 사회적 태도를 육성하는 장소로서 상호 도움을 주는 행위를 활성화 할 수 있다.

물질, 문명의 번영과 새로운 개방질서의 주요 특징으로 커뮤니티의 파괴를 들 수 있다.²³⁾ 이것은 고도의 이동성, 인간적 격리, 공공환경으로부터의 독립을 뜻하며,「유동형 사회, 기능적 커뮤니티」로 표현된다.²⁴⁾ 정보화 사회는 매스커뮤니케이션의 영향으로 공동 생활을 잃어감으로써 커뮤니티가 쇠퇴하는 결과를 낳았으나 인간은 상호간의 연대감을 형성시켜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²⁵⁾ 촉진의 심리를 충족시키려는 노력을 보인다. 이 욕망은 「동적추세」라고 할 수 있으며 인간으로 하여금 자유로움과 생활 영역의 확장을 추구하게 하고 열린 공간을 찾게 한다.²⁶⁾ 바람직한 생활 환경의 조성은 적역사회 형성의 인간관계가 원만함으로써 가능해 질 수 있고²⁷⁾ 인간성의 회복을 통하여 사회성의 획득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 환경 심리적 측면에서 각 공간 영역의 위계구조를 살펴봄에 있어 주목해야 할 사항은 인간은 물리적 경계로 한정된 공간에서 심리적으로 한가지 욕구의 충족만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연속성의 공간인 준공적 공간은 정적추세와 동적추세간의 긴장관계를 완화하게 해소하는 역할을 하며, 상호 융합과 연결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커뮤니티, 프라이버시의 두가지 욕구는 충족 될 수 있다. 현재의 환경 레이어아웃과 개인이나 한 집단의 요구를 더욱 바람직하게 충족시켜 줄 환경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환

19) Ibid, 224.

웨스턴(Westin, A. 1970)은 4가지 유형으로 프라이버시를 구별한다. 첫째, 다른 사람의 관찰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인 "고립", 둘째, 다른 사람과 같이 있기는 하지만 외부 개체로부터는 자유로운 상태인 "진짜", 셋째, 하나의 군집 안에서조차 분명하게 못한 상태인 "일명", 넷째, 원하지 않는 침입을 통제하기 위해 심리적 장벽을 이용하는 상태인 "제한" 상태이다. 그는 프라이버시에 의해 도움이 되는 4가지 목적을 규정한다. 즉 그것은 "개인의 자존성"을 제공하고, "관장의 이권"을 허용하며, "자기평가"를 높이고, "익사공간"을 제한장벽에 보호한다. 그러므로 프라이버시는 한 개인 혹은 집단과 다른 사회 조직과의 연관과의 관계에서 중요하다.

20) Ibid, 226.

「개인적 공간」 욕구에 대한 제본은 프라이버시 획득을 위한 기본적인 수단이다. 개인적 공간에 대한 개념은 로버트 쇼머의 저서인 「개인적 공간」 디자인의 행동 기준」에 자세히 나타나 있다. 이 책에서는 개인적 공간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개인적 공간은 침입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신체에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경계의 연속을 말한다. 사람들은 온갖과 친근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접근하고 싶어하지만, 한편, 적로 이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히 떨어져 있으려고도 한다.

21) 11) Ibid, 34.

22) 16) Ibid, 230.

23) R. J. Curran : Architecture and The Urban Experience Van Nostrand Reinhold Co. 9, (1983).

24) 김중배, 문병규, 신남규 : 도시민의 커뮤니티 의식 구조 요인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47권, 82-83, (1992).

25) 이준환 : 조직커뮤니케이션론, 도서출판 정예원, 21-24, (1987).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은 관련된 당사자들이 상상을 교류하며 서로가 유사한 상징을 공유할 수 있는 상호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즉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유기체가 다른 유기체와 지식, 정보, 의견, 신념이나 감정 등을 '共有' 또는 '共通化'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에는 자각에 대한 반응인 表徵(sign)적 상호작용과 인지적 반응에 의한 상징적 상호작용이 있는데 이를 종합하면 커뮤니케이션이란 "상징과 메시징체계를 통한 사회적 상호작용"이라 할 수 있다.

26) 11) Ibid, 36.

27) Ibid, 368.

경디자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하고, 이때 디자이너는 감수성을 가지고 사용자의 욕구를 파악하여 그 답을 제시해주는 문제해결사이다. 해결책으로서의 환경을 제시해주는 예술의 표현은 경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앎(Knowledge)에 관한 이론을 요구한다.²⁸⁾ 환경디자이너는 선형적 도식(先驗的 圖式 : Schemata)에 의거하여 환경적 정보(의미)를 기호화, 즉 공간적으로 표현하며 인조환경(人造環境)을 조성한다. 그리고 이용자들은 자신들의 선형적 도식에 의거하여 인조환경(즉 기호)을 풀어서 환경적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기초로 하여 행동을 취하게 된다.²⁹⁾ (그림 3) 따라서 현대 사회의 도시화에 따른 인구 증가로 도시 환경이 복잡해지고 고층화되어 인간적인 질의 수준이 왜소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환경심리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적인 측면에서 환경디자인에 접근하여 인간의 기본욕구, 즉 커뮤니티, 프라이버시 추구의 두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인간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지각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환경과 그에 따른 인간의 심리와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이 인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디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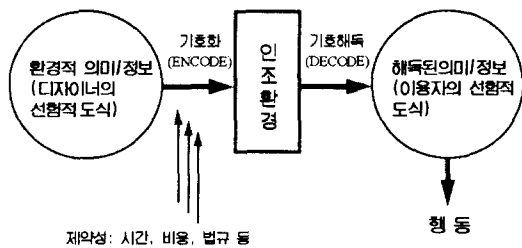


그림 3. 환경정보 모델

4. 준공적 공간의 특성

4.1. 공·사적 공간의 상호 관계성과 준공적 공간

준공적 공간은 커뮤니티와 프라이버시간의 평형을 찾도록 이들의 실제적 결합을 발전시킴으로서 만남의 장소로서의 문화를 형성하는 공공 공간의 역할과 개인의 정서를 함양한다는 측면에서의 사적 공간의 역할을 하여 건물의 배치와 잉여공간으로 파악될 수 있는 공간에 에너지를 불어넣어 준다. 에너지를 증가시켜 도시를 활성화하는 것은 정보

의 유입을 통한 엔트로피의 역전을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 정보란 환경 디자이너에 의해 실현되는 구축 환경(構築環境: Built Environment)이며, 이것은 조직된 행동 감각 안에서 공간으로 전달되는 문화적 메시지 시스템(Cultural Message System) 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중간 영역으로서의 준공적 공간의 계획은 인간 환경에 순위적 질서 체계를 부여하는 문화를 창출함을 의미한다.

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것은 인조환경의 창조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일이며 준공적 공간의 계획으로 환경의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2차 영역인 준공적 공간은 집단의 공공 공간이면서도 각 개인간의 영역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예는 그 표현의 방식이나 영역의 특성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어느 시대와 장소를 막론하고 찾아 볼 수 있는, 명백히 나타나는 공간이어서 이러한 공간의 필요성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충족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 문명의 오랜 기간동안 공간의 유기적 창조 개념은 뚜렷이 보여지고 있다.³⁰⁾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 옛 건축의 마당들에서 그러한 공간은 많이 발견되어진다.(그림 6) 또한 그리이스의 중정식 주택이나, 중세나 르네상스 시대의 광장과 공공 건물의 진입 공간 등은 모두 공적·사적 영역의 중간적 존재로서 매우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준공적 공간이다.(그림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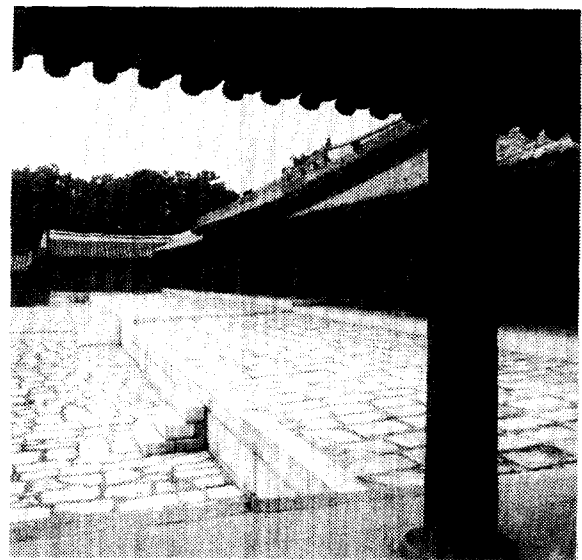


그림 6. 종묘 永寧殿 前面 列柱

• 방의 깊이를 멀리 보이게 하며 내·외 공간의 엄격한 구분이 잘 표현되도록 계획된 준공적 공간

28) A. L. Cothey, : The Nature of Art, Routledge, 77, (1990).
 29) Rapoport, Amos : The Meaning of the Built Environment, Sage, 82, (1982).

30) L. Moholy-Nagy, Space-Time Problems, Esthetics Contemporary, Prometheus Books, 76,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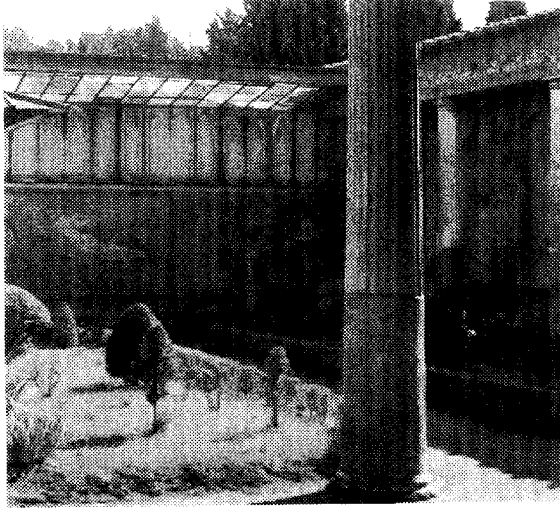


그림 7. 로마, 바다의 비너스 집 중정 A.D.1세기경 폼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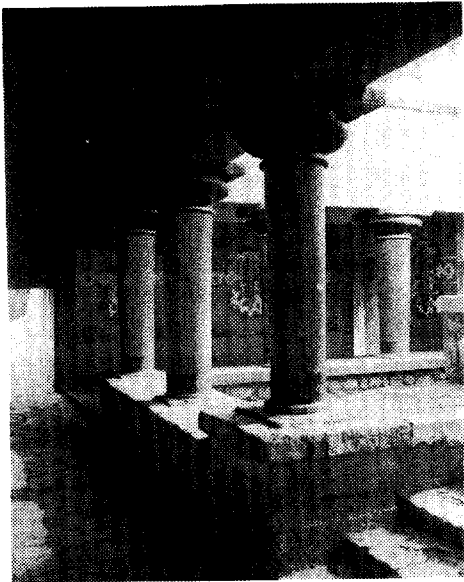


그림 8. 크넷소스 궁전 중기 미노스 시대 B.C.1550-1450년경

도시 환경이 다양한 기능으로 밀집, 분화되고 있는 현 시점의 여건 하에서 이러한 역사적으로도 뿔연적인 존재 당위성을 보여준 준공적 공간은 인간을 향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성으로 생명력 있는 유기체적 환경을 구성하여,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 공·사와 관계없이 도시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순환하도록 한다. 따라서 각 공간의 영역은 고유한 기능을 가지고 질서를 획득하게 된다. 아래의 사진들은 현대의 도시 공간에 있어서 준공적 공간이 잘 계획되어진 예들이다. (그림 9,10,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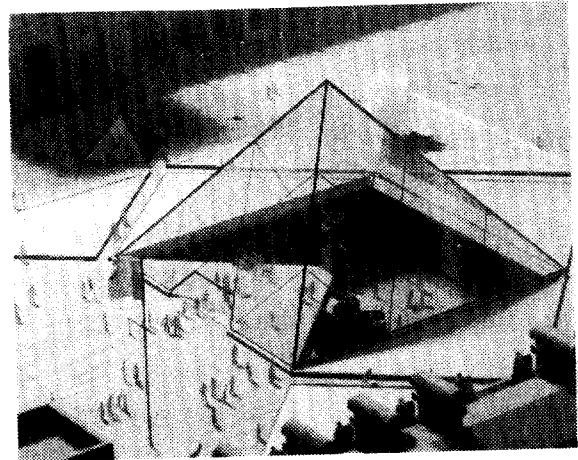


그림 9. 파리 루부르 박물관 내의 준공적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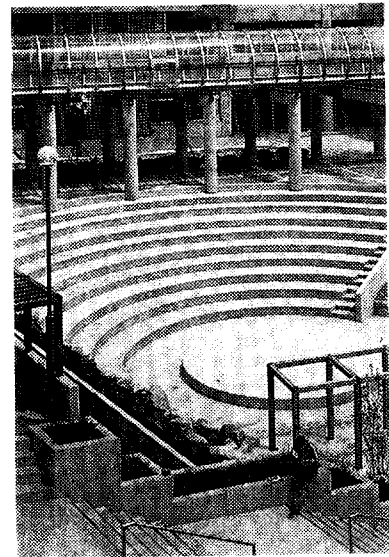


그림 10. 일본의 Namai school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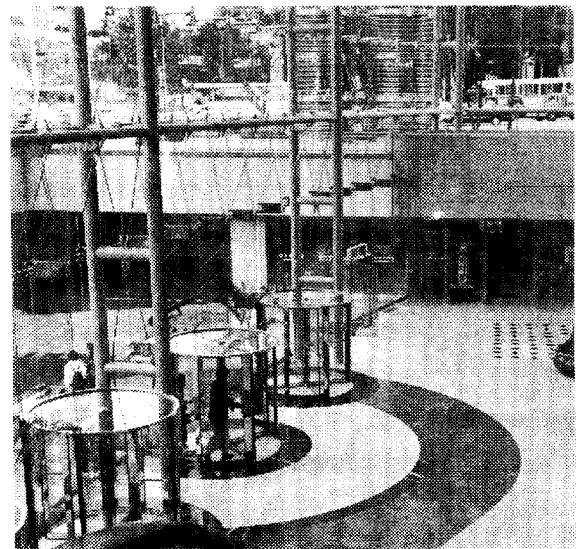


그림 11. 포스코 빌딩내의 아카데미 진입로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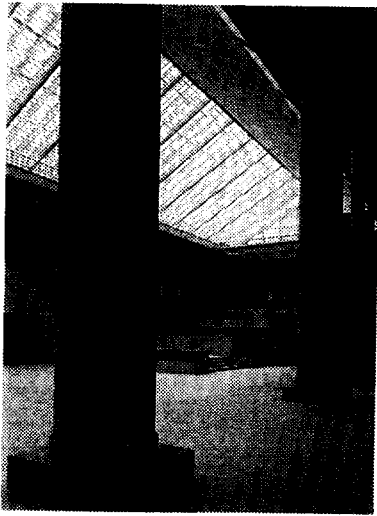


그림 12. Yokohama museum of art 1985

4.2. 도시 활성화 역할로서의 준공적 공간의 중요성 (Semi-public Space)

공간의 유기적 흐름을 통하여 순위적 질서 체계를 유지시켜 주는 기능으로서의 준공적 공간이 뉴 패러다임적 공간 개념에서 그 중요성을 찾아볼 수 있음은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다. 본 장에서는 현대의 도시 환경에 있어서 그 기능과 역할을 살펴 보면서 준공적 공간이 어떻게 인간과의 친밀함을 확립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겠다.

도심지는 모든 영역으로부터의 접근성이 가장 균등한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거나 모이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축적되는 곳이고, 시민 교류의 장소이기도 한다. 따라서 도시가 이미지를 가지고 도시인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도시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공간들 상호간의 대립이 아닌 융합이 절실히 요구되어지므로 준공적 공간의 중요성이 높다고 하겠다. 도시가 이미지를 갖는다는 것은 각 개인이 환경 속에서 잘 행동하여 동료들과의 협력을 위한 집단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을 말한다. 케빈 린치(Kevin Lynch)는 물리적인 지각이 가능한 물체가 가져오는 효과만을 대상으로 도시의 이미지어빌리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다섯 가지 엘리먼트의 형, 즉 패드(Paths: 도로), 에지(Edges: 테두리), 디스트릭트(District: 구역), 노드(Nodes: 마디), 랜드마크(Landmark: 표적)로 분류하였다. 이중 두 지역을 상호 관련시키고 결부시키고 있는 이음자리로서의 에지는 영역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며, 노드는 하나의 구조가 다른 구조로 바뀌는 지점이라고 하였다.³¹⁾ 따라

31) Lynch, K., *The Image of the City* : 김의원 역, 도시의 상, 녹원문화사, 73-76, (1975).

서 이러한 기능의 공간인 준공적 공간이 도시에 이미지를 부여해주는 작용을 한다고 린치는 강조함을 알 수 있다.

준공적 공간은 공간의 단절에서 상호 침투의 관계를 촉진시키는 완충적 역할을 하며, 공간의 연결을 이완시켜 단계적으로 공간에 순위적 질서를 부여하는 매개공간으로 기능한다. 공간의 하이어나키의 성질이 서로 상이한 공간의 접속에 반드시 어떠한 인위적이고, 물리적 수단으로 분절, 또는 구분할 필요가 생기며, 공간의 성질은 이와 같은 수단을 기점으로 바뀌어 가며 변이 되어 가는 것이다. 서로 다른 영역으로서의 진입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흐름을 연결하는 매개체로서 연속성을 갖는 준공적 공간은 공동 사회나 거리를 형성하는 도시적 기반으로서 공적인 도로, 공원 등과 같은 시설과 개인이 속하는 건물 사이의 공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내부에 있어서도 복도, 계단, 홀과 같이 단위를 연결하는 부분을 포함한다. 공공주거지역에서의 준공적 공간은 이웃의 느낌과 자연스러운 방문, 상호 도움을 주는 행위를 활성화 할 수 있으며, 거주자의 긍정적인 사회적 태도를 육성하는 장소로 상호 도움을 주는 행위를 활성화 할 수 있다.³²⁾ 또한 개개인의 제한된 상호 작용에서 발생하는 거주자의 사회적 고립감은 해소될 수 있으며, 동질성의 의식을 심어준다. 또한 도시 공간의 흐름이나 변화, 질서의 연속성 등 도시 공간의 기능과 효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드며, 도시는 이미지를 갖게 되어 방향성은 증가되고 활성화되어 우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낳는다. 이것은 C.I., 즉 도시에도 아이덴티티(Identity)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과 같으며,³³⁾ 도시와 물질, 정신, 마음을 통합한 감각의 표현으로 창조된 준공적 공간만이 도시에 활력을 줄 수 있다고 본다.

5. 결론

환경을 다루는 디자이너는 궁극적으로 인간의 평균적 행복과 생활의 질적인 발달을 추구하고 인간적 지적,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는 생활공간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Frank Lloyd Wright)는 이를 “목적에 있는 예술”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사용자의 요구(User Needs)가 디자인 요건(Design Requirement)이 되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디자인이 행해져야 함을 의미한다.

32) 18) Ibid, 338.

33) 와다나베 도시히코 : 디자인 문화의 시대 (Fusion 정보 도시), 도서출판 국제, 219, (1990).

이렇게 구축된 환경은 인간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환경과 인간과의 유기적 상호 작용³⁴⁾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문화가 형성된다. 따라서 문화 창조자로서 디자이너는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현상을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요구되어진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그리고 환경디자인에서 종합적인 적용을 가능케 하는 체계적이고 학제적인 디자인 접근방법(Interdisciplinary Design Approach)을 필요로 하며 디자이너는 패러다임의 변환을 위기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창조적 혼란 과정으로 파악하여 미래의 대안을 만들어 가는 역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래의 디자인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시각과 사유방식의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뉴 패러다임 관점에서 공간을 파악하는 입장은 공간의 하이 에라키에 따른 영역성을 확실시하고 위계설정의 타당성을 밝히는 이론적 접근방법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공간의 순위적 질서 체계는 준공적 공간의 상호 이완적이며 완충적인 역할로 유지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밀폐되고 삭막한 도시 공간을 활성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기능적 측면에서의 준공적 공간을 통하여 질서 체계는 회복될 수 있다고 본다.

환경디자인에 의한 적절한 준공적 공간의 제안은 미적 가치를 지닌 정보의 전달이며 인간과 환경, 환경과 인간 상호간의 메시지 교환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공간의 위계구조에 있어서 준공적 공간의 기능을 설명하여 현대사회 구조에 있어서의 역할을 강조하고, 현 시점의 환경적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준공적 공간을 제안한다.

연구 결과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공간의 이해에서 출발한 준공적 공간이 도시에서의 풍요로운 삶의 영역을 확장하여 무질서, 엔트로피의 증가라는 부정적인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 에너지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모든 환경적 상황에서 디자인을 통한 문제해결이란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는 가장 근접한 최적해를 찾아주는 작업이며, 이것은 미래사회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대적 흐름과 성향의 이해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문환 : 미학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2).
- 박주현, 김정재 : 조형론, 기문당, (01994).
- 교재편찬위원회 : 공간과 생활, 계명대학교 출판부, (1993).
- 조계순 : 실존적 주거공간, 공간, 5월호, (1985).
- 김종재, 문병규, 신남수 : 도시민의 커뮤니티 의식 구조 요인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47권, (1992).
- 이종희 : 조직커뮤니케이션론, 도서출판 전예원, (1987).
- 이상문 : 환경논의의 쟁점들(엔트로피 논의와 환경문제), 도서출판 나라사랑, (1994).
- 안근혁 : 외부공간의 현황과 활용방안, 공간, 5월호, (1984).
- 박태건 : 세계를 움직이는 127대 파워, 길벗, (1995).
- C. N. Schulz, Existence, Space and Architecture : 김광현 역, 실존, 공간, 건축, 태림문화사, (1985).
- Lang, J., Creating Architectural Theory : 조철희, 김정준 역, 건축이론의 창조, 국제출판사, (1991).
- C. J. Holahan : Environmental Psychology, Random House, (1982)
- Leonard Shlain, Art & Physics : 김진엽 역, 미술과 물리의 만남 1, 도서출판 국제, (1995).
- Werner Heisenberg, Physics and Philosophy : 최종덕 역, 철학과 물리학의 만남, 도서출판 한겨레, (1990).
- Karl s. Chu, : Modal Space - Towards An Architecture of Possible World, 공간, 8월호, (1995).
- Rudolf Arnheim, Entropy and Art : 정용도 역, 예술과 엔트로피, 눈빛, (1995).
- 와디나베 도시희고 : 디자인 문화의 시대 (Fusion 정보도시), 도서출판 국제, (1990).
- Lynch, k., The Image of the City : 김의원 역, 도시의상, 녹원문화사, (1975).
- R. J. Curran : Architecture and The Urban Experience Van Nostrand Reinhold Co, (1983).
- A. L. Cothey, : The Nature of Art, Routledge, (1990).
- Lynden, H., : A New Language for Environmental Design, New York Univ. Press, (1972)
- L. Moholy-Nagy, Space-Time Problems, Esthetics Contemporary, Prometheus Books, (1978).
- Rapoport, Amos : The Meaning of the Built Environment, Sage, (1982).
- Richard A. Etlin : Frank Lloyd Wright and Le Corbusier, The Romantic Legacy, Manchester Univ. Press, (1994).
- Electa Moniteur : Paris 1979-1989, Electa, (1988).

34) 박태건 : 세계를 움직이는 127대 파워, 길벗, 193, (1995).

제임스 러블록(James E. Lovelock)은 1972년에 지구는 생명체와 무생명체인 대기, 해양, 대지가 하나로 영커 부단히 상호작용하며 직합한 생존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는 살아 있는 유기체라는 유명한 가이아(Gaia)학설을 제창하였다.